

대행 스님

믿고 놓는 데는 아무 이유가 붙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천차만별의 사생이 다 그렇죠. 어떠한 곤충이라도 그렇고, 날아다니는 짐승도 그렇고, 물에서 노는 생물도 그렇고 일체 생물이 다 그렇듯이 고통스러운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동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최고의 동물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벗어날 수 있는가.

항상 이런 말을 하는데요, 과거는 현실에 나오고 현실에 살아가는 건 미래에 나오듯이 우리가 이렇게 선원에 다닌다고 해서 과거가 없어지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공부하는 데에 따라서 그 업보가 없어지고 안 없어지고, 팔자 운명이 지워지고 안 지워지고, 거기에 농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항상 말을 했지만 되풀이하는 말을 항상 해야 하는 것은, 그렇게 해도 여러분은 알아듣지 못하는 경향이 여간 많지 않아요. 우리가 밥을 지었으면 뜸을 들여서 다 먹고 치우듯이, 오늘도 아마 회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선법에는 기도 첫날이 따로 없고 회향 날이 따로 없어요. 항상 기도를 하되 관하는 걸로 가고 있죠. 기도는 항상 바깥으로 상대성이 있는 거고 관하는 것은 안으로 상대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대성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믿고, 굳건히 믿고, 나를 끌고 다니는 나의 주인을 진실히 믿으면서 보이고 들리고 하는 모든 것을, 다 삶에 의해서 벌어지고 오므라지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모두 자기가 끌고 다닌다는 거죠. 자기가 하고 다니는 건데 육신을 가진 나는 모두가 '내가 하고 있다'는 거를 생각하거든요. '내가'라는 거는 없습니다. 나라는 거는 없어요. 왜 나라는 게 없을까?

항상 얘기해 드리죠. 속도가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넓게 생각하면 불바퀴가 돌아가고 작게 생각하면 우리 살림살이가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자신으로서 수없는 공한 도리에 의해서 찰나에 바뀌면서 찰나에 또 바뀌면서 이렇게 돌아가곤 있죠. 그런데 내가 왜 이런 되풀이를 자꾸 하느냐. 여러분은 겨냥을 잘못 대고 겨냥을 잘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람이, 내가 항상 말하죠, 이판사판이라고. 이 이판이라는 것도 사판이라는 것도 내가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나로 인해서 생긴 거죠. 나로 인해서 생긴 것을 나로 인해서 들이고 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 육신은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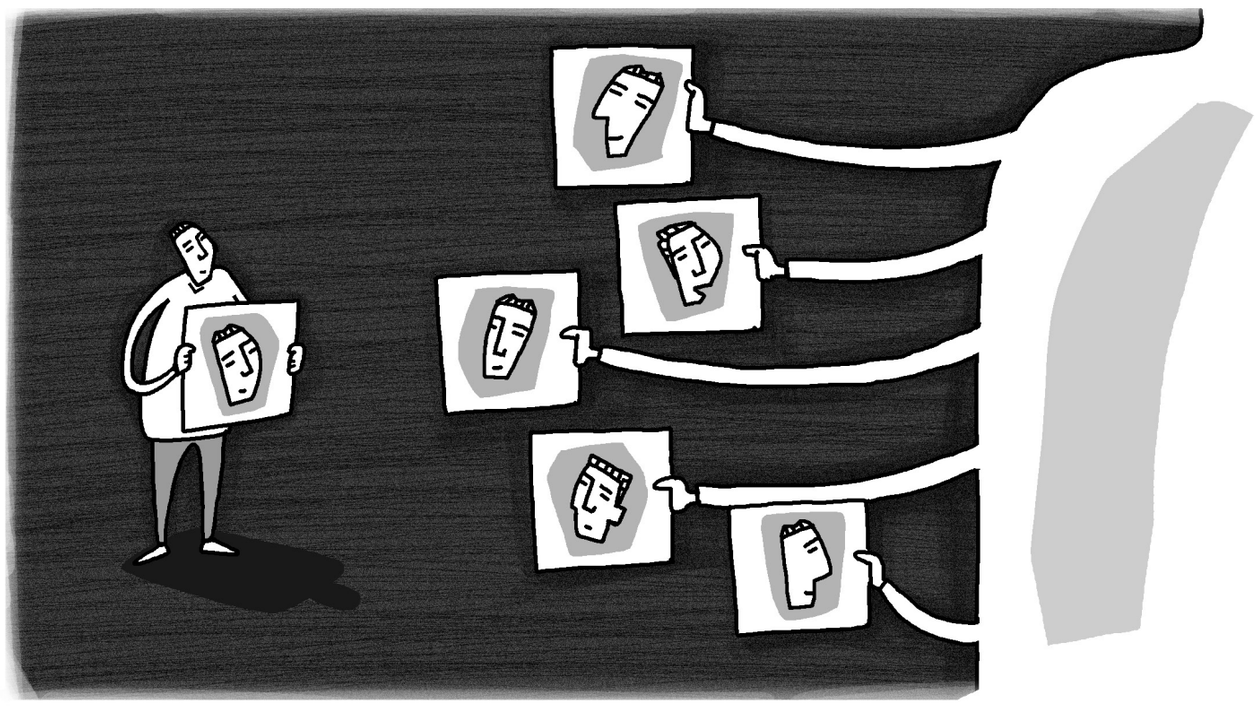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공한 자체에, 즉 말하자면 여러 가지 인연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배낭에다가 다 넣고 그 배낭에서 자꾸 나오는 걸 볼 때 몸뚱이는 배낭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일체가 다 한마음으로서 악업 선업이 돼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이 그것을 아예 개의치 않고 '내가 했다, 내가 망했다, 내가 아프다, 내가 고통스럽다' 이게 아주 입에 젖고 뇌리에 젖어서 그것을 놓질 못해요. 왜 놓질 못하는가.

이 '한마음' 하면 그 주인에서 악업이나 선업이 다 한데 합쳐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합쳐져서 생산을 만드는 그 자체에 의해서 주인공이거든요. 하나 들어오면 하나 또 들어오고, 보는 데도 하나뿐만 아니고 듣는 것도 하나뿐만 아니고 가고 오는 것도 하나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그저 순식간에 돌아가고 순식간에 돌아가고 이러는 동시에 그것을, 첫째는 하나로 뭉쳐서 놓고 '여기서 모든 것을 들이고 내는구나, 내 주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되 용도에 따라서 딱 하나가 닥칠 때, '아! 거기서 다 하는구나.' 이렇게 항상 믿고 있으니까 그거 하나가, 용도가 딱 들어올 때 거기다 맡겨 놓고서는 '거기서밖에는 해결 못 해.' 하는 것이 즉 관이다 이거야. 그리고 지켜보는 거.

그럴 때에 여러분은 '아이고,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러는데 그 생각은 왜 드느냐. 벌써 믿는 게 미거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겁니다. 여기다 맡겨 놓는 믿음보다는 '이게 얼른 됐으면' 하는 욕구가 더 앞서기 때문에 거기에 정통으로 맞아 들어갈 수가 없죠. 맞아 들어가는 자체는 바로 지혜 물바퀴도 되지마는, 법바퀴와 불바퀴가 같이 이렇게 혼합이 돼서 돌아가거든. 그런데 거기에다가 놓기만 하면 녹아 없어지는가 하면 타 버리고, 타 버리는가 하면 녹즙기에서 찌꺼기는 나가고 물이 나오듯이, 생수가 나오듯이 그렇게 되는 법인데, 여기에 맡겨 놓고 믿는 힘보다 내가 욕망이 크고 욕구가 더 많고 그게 더 구체화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와닿지를 못해. 닿지를 못하니까 녹즙기에 갈려서 나올 리가 없지.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주인공에 놨느니 뭐, 어쩌느니 아무리 그래도 내가 볼 때는 미거한 점이 여간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얘기했지만 또다시 거푸 얘기하는데, 즉 말하자면 내가 아프다거나 뭐, 일이 벌어졌다거나, 부도가 났다거나 재난이 들었다거나, 자식으로 인해서라든가, 이러한 문제 등등을 놓고 볼 때에 그것이 먼저 급하지, 급한 생각이 먼저 들지 여기에다가 이판사판으로 믿고 확 그냥 놓지를 못해. 거기는, 믿고 놓는 데는 아무것도 붙지 않아. 이유가 붙지 않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다가 맡겨 놓기도 전에 벌써 그 생각부터 나. 이거 다가온 것부터 생각하니까 그 욕구가 딱 가리는 거야. 딱 가려서 거기에 닿지 못하니까 갈려 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딱 닿지 못하니까 타 버릴 수가 없지. 인과가 타 버릴 수가 없다고. 과거의 인과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크면 클수록 그냥 거기에 매달리고 욕구가 더 크고….

내가 어떤 때는 "아, 당신 맘대로지 누가 이래라저래라 합니까?" 하고 말하는데, 냉정한 것 같지만 냉정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해 주는 그 마음도 다 생각이 있어서입니다. 생각 없는 길을 가는 사람은 없어요. 나도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아프면 병원으로 가겠다, 이리로 오겠다 이러는 것도 자기 안이 구체적으로 완벽해야 그게 스스로 자기가 택하는 일이지, 완벽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누가 이러란다 저러란다 해도 그것은 거기에 닿지 않는 일이라.

그러니 어차피 마음의 배낭을 짊어지고 나온 사람들이 한 철 지내다가 한 철 나게 되면 갈 것인데 내 영혼을 구제를 받고, '영혼' 하면 내 몸뚱이 속의 모든 인연에 따라서 모두 한데 합친 것이 영혼이에요. '영혼을 다스리는 내 마음과 더불어 구제받고, 모든 세세생생에 끊임없이 돌아가는 이 고(苦)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참된 자유인이 되라' 이런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에 이 몸뚱이 있을 때 이 도리를 모른다면 세세생생에 또 끄달립니다.

그러니 어차피 그렇게 나왔다가 갈 것을…, 이 사대는 원점으로 도로 가고 그 마음 나기 이전과 마음은 결국 이 세상에 거추장스럽게 또 나올 거냐? 금이 돼서 나올 거냐, 깡통이 돼서 나올 거냐. 이런 데에 수난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차피 말이 났으니 말이지 내가 답답한 것은요, '참 이상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관리인인데 왜 이것저것…, 모든 여러분은 관리하는 분들입니다. 재산이 있다면 재산 관리에, 자손이 있다면 자손 관리에, 모든 가정의 관리인으로서 내가 관리하는, 내 몸도 내가 관리하는 사람이지 내가 '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관리자예요, 관리자. 그런데 관리인이 왜 그렇게 그 주인을 비켜 놓고 그렇게 그냥 아둥바둥하는지 난 모르겠어. 잘못된 거 있으면 주인이 잘되게 할 거고 주인이 다 할 건데 왜 주인도 아니면서 자기가 괜히 나서서 아등바등 아등바등하면서 온통 난리를 지기는지 모르겠다 이거야.

이해가 안 가는 점이 많죠? 이판사판으로 믿는다면, 나를 끌고 다니는 나의 주인을 믿는다면 육체가 오늘 죽든 내일 죽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또 나는 죽을지언정 내 자식은 죽지 말아야 한다는 그 착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부모든 자식이든 착을 두지 말아야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착을 두게 되면 오히려 가던 발목을 쥐고서, 옷자락을 쥐고서 끊임없이 그걸 가지 못하게 매 놓는 형국이거든. 전구는 많지만 전력이 다 똑같듯 내가 컴컴하면 자식들도 컴컴해지는 거예요. 내가 밝아야 자식도 밝게 되죠. 한방에서 살면서 내가 불을 켜면 다 같이 밝게 살 수 있을 텐데

☞ 22면으로 계속

